조계종 사서실장에 진우 스님 임명

교육국장엔 응관 스님



조계종 새 사서실장에 前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2월 11일 신임 사서실장에 진우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지행 · 일만 스님을 임명했다. 설정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알아야 한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사부대중과 국민에게 겸손, 친절, 봉사, 헌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서실장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신흥사 · 용흥사 주지 및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고, 고불총림선원 · 용흥사 몽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상임감찰 지행 스님은 원장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법주사 승가대학 및 동국대 경주캠퍼스 ·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청도 대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일만 스님은 원영 스님을 은사로 2000년 수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 및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법주사 총지선원 · 망월사 천중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2일 신임 교육국장 응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응관 스님은 해인사를 재적 본사로, 본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8년 前총무원장 지관 스님 사서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경북 성주 심원사 주지로 전법활동을 해왔다.

윤호섭 · 신성민 기자

연말 불자들 기부 열기 '뜨겁다'

불교계 각 기부처
후원금 모연 청신호



11월 23일 아름다운동행이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쪽방촌에서 진행한 연탄 배달봉사 모습. 아름다운동행 측은 아이연탄맨을 비롯해 후원 캠페인에 대한 불자들의 후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불자들의 기부 열기는 뜨거웠다. 불교계 공공모금 캠페인과 공익 후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먼저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 산하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캠페인 모연액은 2013년 모금캠페인 시작 이후 최고 모연금액을 달성했다.

날마다좋은날에 따르면 2017년 10월 31일까지 모금된 금액은 2억1865만원으로 2013년 출범 당시 1억1880만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모금액인 2억760만원을 10월에 넘어선 것으로 기부 및 후원이 늘어나는 11월과 12월을 합산하면 훨씬 높은 금액이 모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거리모금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부터 300여 사찰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사찰과 교구 · 사찰신도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날마다좋은날은 불자들의 동참에 힘입어 모금액 배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모금액 대부분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 빈곤가정 가장,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11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상태로 12월 19일 지원대상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5일 지원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행복바라미 역대 최고 모연액
아름다운동행 5% 가량 증가
생 명 나 눔 기증·후원 이어져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7년 약 56억 원의 후원금이 모연됐다. 12월 후원액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대비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미란 아름다운동행 팀장은 "올해는 스님들에 비해 일반 재가불자들의 기부가 많았다"며 "지난해 대비 쌀 등 현물 후원이 다소 줄었는데, 이는 일반 기부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동행은 이 같은 불자들의 후원 증가에 따라 감사선물 증정과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장기기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지난해 7억5000여만 원에서 약 20% 증가한 9억여 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환자 치료비 후원 및 일반 후원에서 큰 증가가 있었으며, 신규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도 300여 명이 늘어났다.

권수진 생명나눔실천본부 팀장은 "매달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통한 환자 치료비 후원 모금,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 후원신청서 발송, 기업 후원 증대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나누겠다는 마음들이 모인 결과로 본다. 이 같은 많은 이들의 정성이 잘 전해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큰스님 되기 위한 관문

한 단계 높은 법계를 받아 태고종단 발전과 한국불교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자 스님들이 면접에 뛰어들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12월 1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서 제16차 법계고시를 시행했다. 선덕과 중덕 법계는 필기시험과 면접, 대덕과 종덕 법계는 '종단 발전 방향' 주제 리포트 심사 및 면접, 종사 법계는 서류전형으로 진행됐다.
이번 법계고시는 종사 21명, 종덕 22명, 대덕 59명, 중덕 23명, 선덕 8명 등 133명이 응시했으며, 고시위원장 원명 스님과 고시위원 정선 · 법정 · 석천 · 혜암 스님이 심사를 맡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방송 내년 예산 405억원 확정

13일 이사회서 의결… 미디어센터 건립 등 포함

BBS불교방송의 내년도 예산이 405억 원으로 확정됐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사회는 12월 13일 제101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확정과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양질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필요한 내년 예산안 405억원을 승인했다. 내년 예산에는 서울 상암동 글로벌 미디어센터 건립과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는 제주 불교방송 설립 예산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의 후임 이사로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을 선임하고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의 이사 연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1명 가운데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 엄상호, 이수덕, 손준석, 구형선 이사,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전국사찰수호聯, 종단협 산하단체 된다

이사회서 산하단체 구성 결의… 군소종단 지원 기대

사찰환경 침해 대응코자
범불교적 결집 눈길 끌어
새해 예산 13억8840만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사찰수행환경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범불교적 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의 산하 단체 가입을 결의했다.

이날 종단협은 도시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침해당하고, 불교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을 돕고자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수도사 주지)를 산하 단체로 등록하기로 했다.

회장 설정 스님은 "범종단적으로 삼보정재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사찰수호연합회의 경우 불법수호를 위해 힘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케이블카 개발 등으로 사찰 환경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분쟁에 종단협을 대신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산하단체 가입 요건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단협의 이번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의 산하단체 구성으로 향후 사찰수행환경 침해문제 대응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종단협 소속 종단 중 행정력이 떨어지는 군소종단에 해당 사안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당연직 회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부회장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아울러 신임 상임이사로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중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정선 스님을 변경 승인했다.

이밖에 2018년 신년하례회를 1월 26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며, 새해 첫 총회 및 이사회는 2월 27일 개최키로 결의했다. 4월 중순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등을 열기로 했으며, 새해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3억884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종단협은 천태종 前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후임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자 과열양상으로 인해 2018년 신년하례회 직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018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장학위 12월 6일 확정… 20명에 1억여 원 지원

조계종 내년도 종단 장학승으로 20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2월 6일 '제4기 장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불기2562(2018)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을 확정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해외 4명, 국내 11명, 사찰승가대학원 5명으로 총 20명이다. 신규 장학승에게는 해외 연간 5,200만원, 국내 연간 5,850만원, 사찰승가대학원 연간 1,000만원으로 연간 총 1억 2,050만원이 지원된다.

선발된 종단 장학승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시(3년 이내)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각 학교의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매 학기별 지급한다.

2018년도 장학승 선발에는 해외 6명, 국내 31명, 사찰승가대학원 10명 등 총 4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장학위는 종단이 정한 전공 분야,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 종단기여 가능성, 추천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장학승을 선발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2018년도 선발의 특징은 국 · 내외 장학승은 석 · 박사과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학업에 대한 열의와 전문연구자로서의 연구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면서 "사찰승가대학원의 경우 승가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심화과정인 연구과정생을 선발해 연구와 수행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